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동물헬스케어 미래인재 양성

전북자치도, 전북대·원광대·익산시와 협약...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  
학생·기업 참여 간담회 통해 현장수요 반영, 실무형 인재 양성 추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원광대학교에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익산시와 함께 산·학·관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물용의약품, 동물의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급성장하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사진 2면>

현재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과에는 약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두 대학은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미래인재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진로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

동물헬스케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 △ 교육·연구·산업 연계 강화 △현장 중심 교육 확대 △취업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전북대학교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원광대학교가 현장 밀착형 동물보건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후 학생과 기업이 함께한 질의응답에서는 직무 역량 취업 전망,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도는 익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용 연계형 인력양성 체계를 본격 가동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및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져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며 최종 지정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0개 지자체 중 4개 지역만 선정된 것으로, 향후 최종 지정되면 첨단 동물용 신약 개발과 산업 집적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특구에는 13개 동물용의약품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향후 지역 이점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 확대와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동물헬스케어 산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라며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준 기자

## 빈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



26일 어느 주민센터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에 종량제봉투가 많이 비어있다. 중동시장 여파로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비닐봉투, 포장용기 등 다양한 1회용품 포장재 풀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7일부터 나프타 수출통제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제공>

## “사람·자본·문화 선순환 전략도시 전주”

민주 이원택 의원, “자산운용 금융도시·K컬처 콘텐츠 허브 등 속도감 있게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전주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선순환하는 글로벌 전략도시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를 금융·문화·관광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자산운용 금융도시 △K컬처 콘텐츠 허브 △글로벌 미식 관광 플랫폼 조성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현실화 계획을 밝혔다. 전북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NPS)을 기반으로 한국투자공사(KIC), 한국벤처투자 이전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재명 정부 내 확정하고 글로벌 자산운용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금융을 연결해 산업 투자 중심의 전주형 금융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 전략이 실현되면 전주는 연금



과 국부펀드, 민간 자산운용사가 모이는 국내 대표 금융도시로 성장하고 지역 산업을 뒷받침하는 자본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전주를 K컬처 이야기 원천지로 만들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400억원 규모의 K-Stay 콤플렉스를 조성해 판소리 등 전통 서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K-Stay 콤플렉스: 콘텐츠 전시관과 교육·체험·창작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시설실감 콘텐츠관, 문화기술 연구시설, 글로벌 OTT 시나리오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축해 전주를 K컬처 콘텐츠 생산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 콘텐츠

츠 산업으로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전주를 세계적인 미식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주 세계음식축제를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주 푸드패스'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주를 글로벌 미식 관광 플랫폼 도시로 육성한다.

특히 미식과 문화, 관광을 결합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전주를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원택 의원은 "전주의 금융, 문화, 미식이라는 강점을 하나로 연결해 사람과 자본, 콘텐츠가 끊임없이 모이고 재창출되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를 지속 가능한 창조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토·일요일신문 쉽다

### 지방선거 일부 경선후보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도 넘어

민주당 내에선 "해당 행위로 규정해야" 목소리 제기  
"공정한 경선 해쳐... 패널리티 부과로 클린선거 유도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가 경선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후보들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와 공천 재심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입실군수 예비후보 5명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 중인 김진명 후보에 대한 감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당 공천위는 이미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면접평가 등 각각적인 심사와 서류 검증, 적합도 조사 등을 거쳐 경선 참여 후보자를 확정·발표한 상태다.

특히 사람중심, 도덕성 검증 클린 공천, 낙하산 공천 배제 등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관위 설명이다.

이재운 공천위원장은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했고, 경선 가감산 여부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후보들이 공관위 결정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당의 공식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미 '감점 사유 없음'으로 정리된 사안을 다시 제기하며 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당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열세 후보들이 연합해 특정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공정한 경선을 해치는 행위"라며 "최종 공천 심사 과정에서 패널리티를 부과해 클린 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경선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